

버려진 산업유산 문화·관광 명소로 돌아오다

공간은 활용하기에 따라 쓰임새가 확 달라진다. 쇠락한 탄광과 폐석장, 용도 폐기된 공장, 양곡 창고 등 낡은 산업유산이 문화와 예술의 온기가 더해지면서 매력적인 문화·관광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정선의 삼탄아트마인은 폐광된 삼척탄좌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으며, 포천 아트밸리는 폐석장을 리모델링해 연간 35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제약회사인 유유산업 자리에 조성된 김중업 박물관, 수도가압장을 되살려 활용한 윤동주 문학관, 옛 기무사 터에 들어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일제강점기의 양곡 창고를 개조한 삼레문화예술촌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글 이창호 기자·사진 전수영 기자





삼탄아트마인 폐광에 예술을 입힌 공간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삼탄아트마인은 치열한 삶의 현장을 간직한 탄광을 활용해 광부에 대한 각종 기록과 예술품을 전시하는 문화·예술 공간이다.

국내는 물론 중국, 동남아 등을 뜨겁게 달구었던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로 유명해진 삼탄아트마인은 폐광을 활용해 재창조된 곳으로 광산과 예술품이 한데 어우러진 이색적인 공간이다. ‘태양의 후예’에서 지진 발생 후 유시진 대위(송중기)가 강모연(송혜교)의 신발 끈을 묶어주는 장면, 강모연이 무기말매상에게 납치돼 고문을 당하는 장면, 지진으로 이수라장이 되는 우르크 발전소 내부 장면 등이 이곳에서 촬영됐다. 삼탄아트마인 곳곳에서는 ‘태양의 후예’ 주제가인 ‘유 아 마이 에브리싱’(You Are My Everything)이 흘러나온다.

이상원 삼탄아트마인 상무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해 방문객 수가 20% 정도 증가했다”며 “드라마는 끝났지만, 해외 관광객들의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앞으로 한국을 찾는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의 필수 방문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원도 정선의 삼탄아트마인은 1964년부터 38년간 운영하다가 2001년 폐광된 삼척탄좌의 시설을 그대로 활용한 문화·예술 공간이다. 삼척탄좌는 한때 3천 명이 넘는 광부들이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지하갱도에서 석탄을 캐던 곳으로, ‘석탄산업합리화정책’으로 폐광되기 전까지 정선 지역을 먹여 살린 삶의 터전이었다. 정부의 ‘폐광지역개발지원’ 정책에 따라 2007년부터 5년간의 준비를 거쳐 ‘대한민국 문화예술광산 제1호’를 표방하며 2013년 5월 24일 개장했다. 삼탄아트마인(Samtan Art Mine)은 삼척탄좌의 줄임말인 ‘삼



탄'과 '예술'(art)과 '광산'(mine)의 합성어로 '문화·예술을
 캐는 곳'이란 뜻이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

하이원 리조트가 있는 정선군 고한읍을 지나 태백 방면
 414번 지방도를 따라 함백산으로 향하면 광부와 석탄을
 끌어올리던 거대한 권양기 타워가 눈에 들어온다. 정암사
 못미처 우회전해 다리를 건너 숲 속으로 좀 더 들어가면 삼
 탄아트마인이다. 주차장 한쪽 갱도 입구의 '아빠 오늘도
 무사히'라는 간판이 '검은 노다지의 꿈'을 품고 '막장'으로
 걸어 들어가던 광부의 삶을 떠올리게 한다.
 관람은 광부가 석탄을 찾아 지하 깊은 곳으로 내려가듯
 이 주차장에서 연결되는 옛 삼척탄좌 사무동의 꼭대기 층
 인 4층에서 3층, 2층, 1층 순으로 내려간다. 4층 로비의
 매표소를 지나면 전망라운지와 아트 레지던시다. 커피와
 스낵을 즐길 수 있는 전망라운지에서는 기억의 정원과 권
 양기 타워, 레스토랑 등이 한눈에 들어오고, 함백산의 풍
 경을 감상할 수 있다. 국내외 작가들이 상주하면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레지던시는 '블랙 초콜릿 룸', '예고 룸',
 '차이니스 코드', '사하라' 등 제각기 다른 주제와 분위기로
 꾸며져 있다. '마리오네트 뮤지엄 룸'은 국내외 송중기 팬
 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공간으로 송중기가 촬영 중에
 머물다 간 방이다.

3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는 막장으로 향하는 광산노동자
 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3층에는 탄광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삼탄자료실과 주기별로 기획전이 열리는 현대미술
 관 CAM(캠·Contemporary Art Museum)이 있다. 삼척
 탄좌 40년 역사를 고스란히 보존한 전시공간을 둘러본 뒤
 2층으로 내려가면 '태양의 후예'의 강모연이 악당 아구스
 에게 납치된 장면을 찍은 '마인갤러리4'를 만난다. '아프로
 디테 거품의 비너스전'이 열리는 전시공간으로, 삼척탄좌
 시절 광부 200여 명이 한꺼번에 탄가루를 씻어내던 샤워



조차장을 그대로 활용한 레일바이뮤지엄에는 권양기, 탄차, 인차, 레일, 비상구 표지판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곳에서 '태양의 후예'의 우르크 지진 장면을 촬영했다.



탄광에 예술을 입힌 삼탄아트마인에는 옛 광부들의 애환이 담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마인갤러리4'에는
 '태양의 후예'의 강모연이 납치되었을 때 앉은 의자가 그대로 있고, 빔 프로젝터를 통해 당시 장면이 나온다.



장이었다. 아프로디테 여신상과 천장의 녹슨 수도관이 오
 묘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현대미술관CAM2에서는 진시황
 의 삶과 욕망을 엿볼 수 있는 '진시황 병마용' 전시 열리고
 있다. 미술품 수장고에는 이곳의 운영을 위탁받은 솔로몬
 의 고(故) 김민석 대표가 40여 년 동안 세계 곳곳을 다니면
 서 모은 수집품 10만여 점이 보관돼 있다. 1층에는 광부
 복과 장비를 직접 착용해볼 수 있는 광부 체험장, 레지던
 시 작가들이 운영하는 예술 놀이터, 광부들이 갱도에서 나
 와 일을 끝낸 뒤 작업용 장화를 씻던 세화장을 재생한 '마
 인갤러리1' 등이 있다.

세화장에서 연결 통로를 따라가면 삼척탄좌에서 캐 올리
 던 모든 석탄을 집합시키던 조차장을 그대로 보존한 레일
 바이뮤지엄이다. 지하 600m 수직 갱도로 들어가는 승강
 기, 석탄을 실었던 탄차, 인부를 나르던 인차, 업무상황판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 심지어 깨진 유리창도 그대로 있
 다.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검은 선로 위에는 상어를 장식
 하는 진분홍의 꽃이 붉게 빛나고 있다. 레일바이뮤지엄을
 빠져나오면 넓은 마당에 동굴 와이너리, 키즈 카페, 제2 수
 갱탑이 있다. 해발 832m에서 이름을 딴 '레스토랑832L'은
 탄을 캐는 장비를 고쳐던 정비공장을 리모델링한 곳으로
 층고가 높고, 정비 기기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 독특한 분
 위기를 자아낸다. 정원을 산책하거나 레스토랑에서 식사
 를 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가면 주차장과
 전망대 라운지다.
 '마을 똥개들도 지폐를 물고 다녔을 정도'였다는 삼척탄좌
 와 광부들이 몸 담았던 삶의 현장은 역사의 뒷안길로 사
 라졌지만, 문화·예술이 덧입혀진 공간에는 시간의 흔적과
 예술의 희망이 남아 있었다.



포천 아트밸리

지역 문화·예술 명소로 부활

경기 포천시 신북면의 포천 아트밸리는 30년 동안 화강암을 캔 뒤 웅물스러운 모습으로 버려졌던 폐채석장을 활용해 조성한 친환경 문화·예술 공간이다.

포천 아트밸리가 위치한 해발 424m의 천주산 채석장에서 생산된 화강암은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대법원, 인천국제공항, 세종문화회관 등 우리나라 주요 건축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며 ‘포천석’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포천시는 1971년부터 2002년까지 채석이 끝난 뒤 홍물로 방치돼 있던 폐채석장을 2005년부터 아트밸리로 조성하기 시작했다. 폐채석장의 독특한 경관을 활용한 포천 아트밸리는 2008년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지역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까지 지원받았다. 지난 2009년 10월 개장한 포천 아트밸리는 연간 35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가 됐다.

천주호가 연출하는 이국적인 풍광

포천 아트밸리 매표소 입구 바로 앞에 있는 ‘돌문화 홍보전시관’에서 아트밸리 조성 과정과 포천 화강암의 특성 등에 대해 알아본 후 아트밸리의 백미인 천주호로 향했다. 입구에서 전체 길이 420m의 모노레일을 타면 쉽게 올라갈 수 있다. 다리품을 팔아도 15여 분이면 모노레일 하차장에 도착한다. 직진하면 4~10월 주말마다 다양한 음악회와 공연이 열리는 야외 대공연장과 우주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천문과학관이다. 1층 전시실은 지구의 탄생과 구조 등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꾸며졌고, 2층 전시실에서는 동작인식시스템을 통해 계절별 별자리 체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우주에서 날아온 철질운석(23×23×18cm, 26kg)을 만져볼 수 있다. 천체투영실에서는 4D 입체 영상과 별자리를 볼 수 있고, 천체관측실에서는 최첨단 천체망원경으로 태양의 홍염과 밤하늘을 수놓는 별을 관찰할 수 있다.



화강암을 이용한 조각 작품 20여 점이 조각공원과 탐방로 곳곳에 설치돼 있다. 포천 화강암은 재질이 단단하고 아름다워 청와대, 국회의사당, 세종문화회관 등 우리나라 주요 건축물에 사용됐다.





1 화강암을 채석하며 파 들어갔던 웅덩이에 샘물이 솟고 빗물이 고여 자연스럽게 형성된 천주호. 2 포천 막걸리 통 2만여 개로 만든 이글루. 3 철제로 만든 돌음계단.



천문과학관을 둘러본 후 왼쪽 천주호 이정표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면 아트밸리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천주호 전망대다. 아트밸리를 있게 한 핵심 공간인 천주호는 화강암을 채석하며 파고들어 갔던 웅덩이에 지하수와 빗물이 고여 만들어졌다. 높이 50~80m의 거대한 석벽이 병풍처럼 펼쳐진 절벽과 질푸른 물이 어우러진 이국적인 풍광이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여기에 인공으로 퍼 올린 계곡물이 수직 절벽을 타고 호수로 떨어지면서 절경을 이룬다. 1억8천만~3천만 년 전 공룡들이 살았던 쥐라기 시대에 기원한 화강암 단층 곳곳에는 철분이 풍화작용으로 까맣게 흘러내린 자국이 있고, 과거 돌을 캐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한국에서 보기 드문 풍광이다. 호수의 최대 수심은 25m, 수질은 1급수로 가재, 도롱뇽, 버들치 등이 산다. 서울에서 온 추현자(48)씨는 “깎아지른 절벽과 에메랄드 빛 호수가 너무 아름답다”고 감탄했다.

천주호 전망대에서 산책로를 따라 아트밸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소원의 하늘정원’에 오르면 호수의 전체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하늘정원에는 방문객들이 자신의 소원을 적어 걸어놓은 소원지가 바람에 나부끼는데 읽어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하늘정원에서 내려갈 때는 철제로 만든 달팽이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돌아서 내려가는 계단’이라는 의미의 돌음계단은 수직 8m 아래로 연결된 중앙 기둥을 끼고 빙빙 돌면서 내려가는 수직 동선이다. 아찔함을 온몸으로 느끼며 계단을



내려와 왼쪽 호수 쪽으로 가면 천주호 끝자락에는 수변 공연장이 있다. 김병섭 포천 아트밸리 팀장은 “수직으로 깎인 절벽 아래 조성된 수변 공연장은 주변이 바위산으로 가려져 있어서 연주 시 공명이 황홀하다”고 말한다. 수변 공연장에서 모노레일 탑승장으로 나오면 전망카페와 조각공원으로 이어진다. 조각공원은 채석장을 재활용한 공간답게 채석장 곳곳에 튀구는 폐석으로 마당을 조성한 뒤 화강암으로 만든 조각 작품과 일반 조각품을 설치했다. 옛 채석장 풍경을 예술적으로 재현해놓은 설치미술과 상반신은 절벽 동굴 속에 꼭 끼어 있고 하반신만 밖으로 나온 것처럼 보이는 특이한 석상이 눈에 띈다. 아트밸리는 화강암 체험학습, 칠보공예, 자개공예, 리사이클링 & 토탈공예, 천연화장품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지는 공연장. 5 세계화폐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교육전시센터. 6, 7 천문과학관의 천체투영실과 천체관측실.



김중업 박물관 공장에서 핀 근대건축 예술의 꽃

경기도 안양시 옛 유유산업 자리에 조성된 김중업 박물관은 사무동과 공장동, 보일러실과 굴뚝 등을 옛것 그대로 살려낸 복합문화공간이다.

“건축이란 희열을, 삶에의 찬가를, 노래와 춤과 시와 로망을 던져주는 것. 작가가 정성껏 꾸민 것을 시간이 인간에게 되돌려 주는 것. 사람이 반기고 아끼고, 그러다가 하루는 신의 소유물이 되는 것. 쓸모가 있고 아름답고 의젓한 것이 다시 금 대자연 속에 되돌려지는 것. 그러기에 인간이 남긴 기호들이 상징의 세계 속에 승화되는 것. 얼마나 건축가란 맛있는 삶이냐.”

한국 모더니즘 건축의 거장 김중업(1922~1988)은 40여 년 간의 건축 활동을 통해 200여 개의 프로젝트와 작품을 남겼다.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주한 프랑스대사관 외에도 삼일빌딩, 서강대 본관, 부산대학교 본관, 서산부인과, 유엔 기념공원 정문, 올림픽 상징조형물인 평화의 문 등이 그가 디자인한 작품들이다.

1950년대 초 근대건축의 기능주의와 표현주의를 결합한 르 코르뷔지에(1887~1965)를 사사한 김중업은 프랑스 건축과 우리 전통의 건축을 토대로 한국 건축의 초석을 놓았다. 그의 건축은 주로 곡선과 원형 등의 기하학적 형태에서 유출해낸 디자인 언어로 낭만적이고 시적인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김중업은 공장 디자인에도 참여했는데 1959년 완공한 제약 회사 유유산업 안양공장은 공장 건물로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작품이다. 유유산업 공장은 공장 건물과 조각 작품을 접목한 김중업 초기 작품에 해당한다. 고은미 김중업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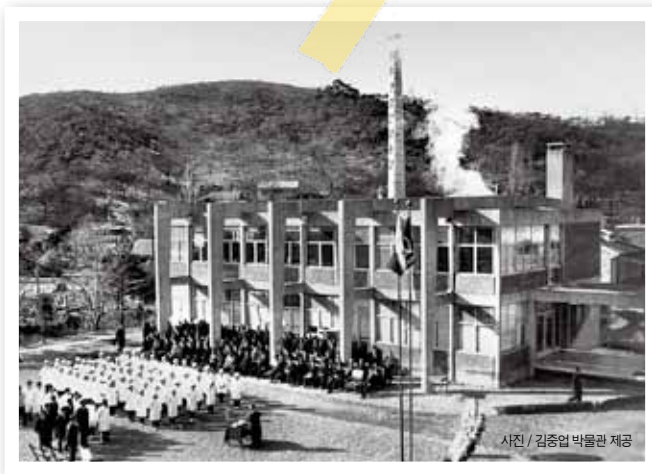


사진 / 김중업 박물관 제공

김중업관은 건축가 김중업의 설계로 1959년 지어진 유유산업 건물 중 하나이다.

학예연구사는 “김중업 박물관은 김중업이 설계한 제약회사 유유산업 공장을 리모델링한 복합문화공간”이라며 “건축을 예술의 경지로 승화 시킨 김중업의 투철한 작가의식과 예술관에서 비롯된 건축적 사고와 작품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안양시는 2006년 유유산업 공장이 이전하자 2007년 이를 사들여 인근의 안양예술공원과 연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계획을 세웠다. 이후 안양이라는 명칭의 유래가 된 고려 시대 사찰 안양사(安養寺) 터가 발견돼 발굴작업 등 오랜 산고 끝에 2014년 3월 거장 건축가의 작품 속에 그의 이름을 딴 김중업 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옛 공장 사무동은 ‘김중업관’, 보일러실은 공연장과 세미나실이 있는 ‘어울마당’, 창고는 이곳 발굴 조사에서 나온 유물을 전시한 ‘안양사지관’,

연구실은 교육과 특별 전시공간인 ‘문화누리관’으로 꾸며졌다.

안양시 석수동 예술공원로에 위치한 김중업 박물관에 들어서자 마당 왼쪽 한편에 중초사지 당간지주(보물 4호)와 고려 시대 삼층석탑(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64호)이 나란히 서 있다. 당간지주에는 신라 흥덕왕 원년인 826년 8월 6일에 채석하여 그다음 해인 흥덕왕 2년(827) 2월 30일에 세웠다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중초사는 10세기 초 안양사로 바뀌면서 16세기 중반까지 존재했다.

삼층석탑을 지나면 김중업관이다. 이 건물은 기둥 역할을 하는 구조물을 외부로 드러내 내부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어졌고, 벽면을 유리로 처리해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였다. 그의 개성과 초기 작품 경향을 보여 준다. 1층 전시실에서는 김중업이 세계를 떠돌며 한국어·영어·프랑스어·일본어로 남긴 메모와 스케치가 담긴 건축 수첩, 20세기 최고의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의 모듈러 등이 방문객을 맞는다.

계단을 올라 문틀과 문짝까지 옛날 그대로인 2층 전시실로 들어서면 김중업이 만든 도면과 작품사진, 건축 모형 등을 통해 김중업의 건축세계가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김중업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주한 프랑스대 사관과 생명을 상징하는 자궁과 성기의 모양을 본떠서 설계한 서산부인과 나무 모형은 김중업의 큰아들이 기부한 것으로 우리 현대 건축사의 흐름을 짚어낸다. 또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사건을 계기로 현재 성남시인 광주 단지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을 비판한 탓에 강제추방당해 1971년부터 1979년까지 프랑스에서 도피생활을 해야 했던 사연도 알 수 있다.

김중업관 옆에는 문화누리관, 그리고 뒤편에는 어울마당이 있다. 문화누리관은 준공 당시 건물 입면에 조각가 박종배의 모자상과 파이어니어상 등을 설치한 김중업 디자인의 백미로 꼽힌다. 마당 중앙에는 공장의 일부였던 돌기둥 24개를 활용한 배영환의 작품 ‘사라져 가는 문자들의 정원’이 우뚝 서 있다.



모자상과 파이어니어상을 설치한 문화누리관에는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공간, 옥상정원, 레스토랑, 카페 등이 들어서 있다.



해외 산업유산 지역 문화·예술 명소로 부활

황량하고 쓸모가 없어진 산업유산의 재활용 프로젝트는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유럽에서 시작됐다. 산업유산을 재활용해 문화와 예술의 명소로 되살려내는데 성공한 사례를 소개한다.



1 독일 에센 출퍼라인 광산 지대

삼탄아트마인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은 산업유산으로,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유럽 중공업의 발전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건물 설계에 독일의 건축 사조인 바우하우스 양식이 도입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독일 에센 지역의 북쪽에 자리한 출퍼라인은 1980년대 중반까지 석탄을 생산하던 세계 최대의 탄광이었지만 석탄 산업이 쇠퇴하면서 폐광이 되었다. 출퍼라인 광산지대는 다른 산업유산처럼 일부는 그대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재활용됐다. 보일러실은 레드닷 디자인 박물관으로, 석탄을 세척하던 공장은 루르 박물관으로 거듭났다. 또 여름에는 코크스 공장이 야외 수영장으로 변한다.

2 프랑스 칼레 국제 레이스 패션 박물관

19세기 초반에 지어진 레이스 공장에 들어선 칼레 국제 레이스 패션 박물관은 레이스 세공으로 유명한 칼레의 명성과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문박물관이다. 2000년 공장 폐쇄 때까지 사용했던 공장 설비가 그대로 보존돼 있고, 레이스 직물과 수공예품, 재봉틀 기계 등 칼레 레이스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물로 채워져 있다. 2009년 개장한 국제 레이스 패션 박물관은 오래된 건물에 철과 유리로 만든 구조물을 덧대 신구의 조화를 이뤘다. 건물 외관은 레이스 문양으로 장식했다. 패션쇼가 수시로 열린다.



3 미국 뉴욕 하이라인 공원

서울시가 조성하고 있는 서울역 고가도로공원은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 공원을 모델로 한 것이다. 하이라인 공원은 본래 1934년에 설치된 화물 철로였지만 도로 발달로 1980년 열차의 운행이 중단됐다. 화물로 방치돼 있다가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완성된 공원은 갠스부르트 거리에서 34번 거리까지 이어진다. 길이는 2.33km, 고가의 높이는 9m다. 뉴욕 맨해튼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하이라인 파크에는 나무와 꽃이 자라고, 다양한 예술작품이 설치돼 있다. 버려진 철로를 활용한 하이라인 공원은 센트럴 공원만큼 인기 있는 뉴욕의 명소다.

4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하이네켄 익스피리언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내 남쪽에 있는 하이네켄 익스피리언스는 1988년까지 가동했던 맥주 공장을 개조해 만든 하이네켄 맥주 체험관이다. 이곳에서는 14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하이네켄의 병, 용기, 심벌 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볼 수 있다. 또 다양한 영상과 맥주조정 시설 등을 통해 맥주의 생산 과정과 역사를 생생히 볼 수 있고, 맥주 바에서는 하이네켄 맥주를 시음할 수 있다. 하이네켄 로고가 새겨진 다양한 기념품도 살 수 있다. 하이네켄은 50여 개국, 110곳이 넘는 양조장에서 생산되는 라거 맥주 브랜드다.



5 중국 베이징 다산쯔 798예술구

중국 베이징의 다산쯔 지역에 위치한 798예술구는 중국판 '뉴욕의 소호'로도 불린다. 798예술구는 군수 공장이 밀집되어 있던 공장지대였는데 1990년대 이후 점차 퇴락하자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비어있던 공장 자리에 갤러리와 미술관이 들어서 베이징 제1의 미술촌으로 변모했다. '798'이라는 이름은 공장번호로 보안상 지역 명을 사용하지 않고 번호로 표기된 데서 유래된다. 독일 바우하우스 양식으로 세워진 공장은 그대로이지만 그 공간 안은 다양한 작품으로 채워져 있고, 건물 밖에도 다양한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❶

INFORMATION



낡은 공장이나 폐철로, 폐광, 창고 등 산업유산이 리모델링 후 지역주민뿐 아니라
외지 사람도 찾아와 즐기며 소통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
명소는 기존의 건물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기능이 미술관, 테마파크, 문학관,
공원으로 변모한 공간이다.

둘러볼 곳



▶ 경의선 숲길 공원

지상으로 달리다 2005년 지하화를 시작한 경의선이 좁고 긴 지상구간 6.3km(용산구문화센터~마포구
가좌역)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난 5월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경의선은 1906년 개통, 100년 넘는 역사를
간직한 철로다. 지상부 폐철로 공원화 사업인 '경의선 숲길 공원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서울시가 공사비 총 457억원을 투입했다. 지난 2013년
1단계 대흥동 구간 760m가 개통됐고, 지난해 6월에는 2단계
구간인 연남동(1,268m), 새창고개(630m), 염리동(150m) 구간이
개방됐다. 지난 5월에는 마지막 3단계 구간인 와우교(336m),
신수동(390m), 원효로(690m) 구간이 긴 녹지축으로 되살아났다.
특히 철도 일부를 존치하고 은행나무와 실개천을 설치한 연남동
구간은 '언트럴파크'(연남동 + 센트럴파크)로 불리며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경복궁 옆에 자리잡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옛
기무사 건물 등을 리모델링해 2013년 11월 13일
문을 열었다. 현재 미술관의 사무동으로 쓰이는 붉은
벽돌의 기무사 건물은 일제강점기인 지난 1930년대
근대식 병원으로 처음 세워진 건물이다.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공립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붉은 벽돌의 기무사 건물을 그대로
보존해 현대적인 미술관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현재 미술관 마당에는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2016' 당선작인 신스펙 아키텍처의 신형철 건축가의
'템플'(Temp'l)이 설치돼 있다.

▶ 광명동굴



광명시는 1912년부터 60년간 금·은·동·아연 같은 금속을 캐다가 1972년에
폐광된 가학광산을 사들여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테마파크로 재탄생시켰다.
연평균 12도를 유지해 한여름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는 광명동굴은 길이
7.8km에 지하 275m까지 내려갈 수 있으며, 원형광장, 빛의 공간, 동굴



예술의 전당, 동굴 아쿠아월드, 황금폭포,
동굴식물원, 소망의 초신성, 근대역사관,
공포체험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15년
4월 유료화 개장 이후 1년 동안 관광객
110만 명을 돌파했다. 광명시는 광명동굴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 강경역사관



충남 논산시 강경읍에 소재하는 옛 한일은행 강경지점에 들어선
강경역사관에서는 강경지역 근대역사자료와 지역 서민생활과 관련 깊은
각종 도구 등을 통해 근대 강경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구 한일은행
강경지점은 1913년에 건축된 붉은 벽돌조 건축물로 당시 번성했던
강경 지역의 상권을 대표하는 금융시설이다. 지금도 일대에서 눈에 띈
정도로 규모가 장대하다. 건물 오른쪽에 창고와 뒤쪽으로 살림집을
두고 있다. 논산시는 근대역사 발상지인 강경 지역 역사자료와 생활사를
관광자원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지난 2012년 강경역사관을 개관했다.
강경역사관은 강경 여정의 필수 방문코스로 통한다. 강경역사관 인근의 구
강경노동조합은 강경역사문화안내소로 활용되고 있다.

▶ 삼례문화예술촌



사진 / 완주군청 제공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대지주에 의해 만들어진 양곡창고가 2010년 문을
닫자, 완주군은 이를 매입해 2013년 6월 삼례문화예술촌으로 조성,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과거 아픔의 역사와 전통에 문화와
예술을 접목시킨 삼례문화예술촌은 비주얼 미디어 아트미술관, 디자인



사진 / 완주군청 제공

박물관, 책 박물관, 책 공방 북아트 센터,
김상림 목공소, 문화카페 등 6개 동으로
조성됐다. 비주얼 미디어 아트미술관에는
영상 매체와 미술을 접목한 작품이
전시되고 있고, 책 공방 북아트 센터에서는
자신만의 책을 만들 수 있다.

▶ 윤동주 문학관



서울 종로구 청운공원에 있는 윤동주 문학관은 청운아파트가 철거되고
옹도폐기로 버려진 낡은 수도기압장과 물탱크를 개조해 만든 문화공간이다.
제1전시실인 '시인체'에는 윤동주의 일생을 시간 순서에 따라 배열한 사진
자료와 육필원고, 영인본 등이 전시돼 있다. 제2·제3 전시실은 윤동주의 시



'자화상'에 등장하는 우물에서 모티브를
얻어 물탱크를 원형 그대로 활용해 단한
우물과 열린 우물로 조성했다. 단한 우물은
영상실로 운영하고 있다. 별 헤는 밤'의
시인 윤동주의 삶을 만날 수 있는 문학관은
지난 2012년 개관했다.